

90년대의 국민건강 관리를 위한 홍보 교육



이 시 백

66

90년대에는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하는
국민이 되도록 교육하자

99

1990년대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보건사업의 시대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돌이켜 보건데, 1980년대까지의 우리나라는 많은 보건문제를 가진 전형적인 개발도상국가로서, 이를 탈피하기 위한 투자를 끊임없이 해왔다. 보건재원을 개발하고 적절히 배분하며 각종제도를 확립하고 또 보건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책을 수립하며 대처해 왔던 것이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오늘날 이만큼이라도 건강한 나라의 모습을 갖추게 되지 않았나 싶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문제가 이상적으로 해결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 양상이 후진성을 벗어나고 있다는 뜻일 뿐이다.

즉, 급성전염병에 의한 사망원인이 가장 으뜸으로 차지했던 시대로부터, 이제는 만성퇴행성 질병에 의한 사망원인과 사회병리 현상이 문제가 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보건문제가 확실히 전형

적인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정도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1990년대에 기대할 수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모든 국민은 21세기에 가서 다같이 건강을 성취하고 만성 퇴행성 질병과 같은 예방할 수 있는 질환에서 해방되며, 가진자와 가지지 못한자가 구별없이 평등한 건강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대로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새로운 보건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만성퇴행성 질병과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대처는 과거 보거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된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병원성 균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은 전형적인 개발도상국가의 보건문제이나 우리나라는 이미 이단계제를 넘어 사회문화적 그리고 환경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문제로 더욱 심각한 단계에 들어서고 보니 이제는 이에 대한 대처방안도 달리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질병의 개념도 달라지고 질병의 발생도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만 해석할 수 없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개인이나 국민전체의 생활습성이나 건강에 대한 평소의 의식이 더 중요하여 이에 적절한 대책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다.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암 등이 그러하며 또 정신질환, 마약, 사고, 알콜중독 등도 마찬가지다.

이들 질병들은 앞으로 계속 사회 건강문제로 대두될 것임이 분명할 진데, 이들

66

보건교육은 21세기를
향한 국민보건증진책이며,
이로 인한 효과만이
진정 미래의 보건입국의
길일 것이다.

99

질병은 과거 의료기술 중심의 관리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아래 1990년대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들 질병들이 더 이상의 문제로 발전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그 방법은 물론 보건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건강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은 마땅히 21세기를 향한 국민보건 증진책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한 효과만이 진정 미래의 보건입국(保健立國)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1990년대의 대국민 홍보교육은 과거와 달리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대상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하여 기초부터 튼튼히 하여 온국민의 건강증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먼저 국민 보건 홍보교육의 대상은 학교 인구를 우선적으로 중요시 해야 한다. 오늘 현재 우리나라 학교인구는 전인구의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같이 많은 대상자가 학교보건교육을 통하여 건강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면 이는 곧 국민전체의 건강생활 향상에 직접적인 기여가 될 것임이 틀림없기에 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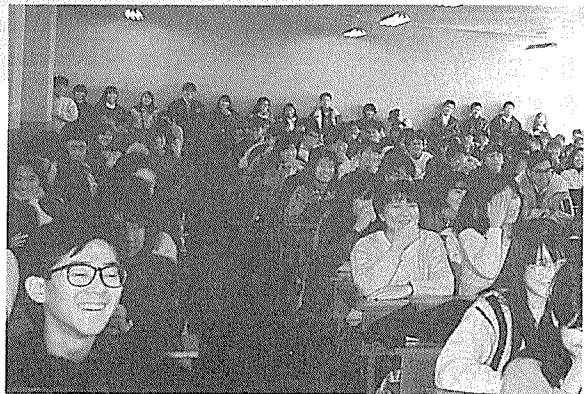
특히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체계적으로 부여하고 학교집단생활을 통하여 건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을 국민학교 교육과정에서 부터 강화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국민건강생활이 인습화 될 수 있다. 그래서 감수성이 예민한 어릴때의 교육이 쉽게 건강생활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퇴행성만성질병도 예방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건데 학교 보건교육은 아직까지도 많은 후진성을 가지고 있다. 학교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교사들의 보건에 대한 의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학교보건교육을 마땅히 지원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학교행정책임자마저 무관심하니 학교인구에 대한 보건교육은 발전의 제한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적어도 1990년대부터는 학교보건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국민보건홍보의 대상은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건강의 중요성을 알 수 있고 스스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사회 영향력을 생각하건데 특히 지역사회 지도자, 각 사회단체 및 사회조직 중심으로 건강에 관한 사회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은 어느 개인의 만족으로만 전국민

국민보건 홍보 교육의 대상은 학교 인구를 우선적으로 중요시 해야 한다.



건강은 지식의 전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행동으로 실천하는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만족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전체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도자 중심의 홍보교육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훈련교육기능을 가진 사회단체 및 조직은 건강에 관한 기본 지식이라도 전달할 수 있도록 훈련교육과정 편성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국민홍보의 내용으로서 강조될 수 있는 것은, 건강은 지식의 전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교인구를 포함한 모든 연령 계층에서 정한바 건강생활을 실천하도록 강조해야 한다. 뿐만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권으로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가능한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개발과 홍보교육을 해야겠다. 그럼으로써 예방가능한 모든 질병은 어느 정도 사전에 관리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국민의료비 절감효과에도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학교인구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그내용을 확대시키고 또 좀더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개인의 건강문제를 발견하는 목적외에 학생건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학교환경진단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일반 국민에 대한 건강에 대한 홍보내용에 있어서도 개인중심이 아니고 가족단위의 건강을 강조하여 이에 알맞는 건강관리 지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개인과 더불어 생활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깨닫게 하자는 것이다.

21세기를 향해 달리는 건강한 국민이 되기 위하여 1990년대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해야 겠다. 그리하여 건강으로 발전하는 사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990년대를 마칠 필요가 있다.

〈필자=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교수〉